

제2편
분야별 성과 및 계획

제9장
울주문화재단

752 제1절 일반현황

755 제2절 주요사업 추진현황

제1절 일반현황

1. 연혁 및 운영전략

집필 • 울주문화재단 경영기획팀장 이왕운
 집필 • 울주문화재단 경영기획팀 주임 류화이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구분	주요 내용
2020. 9.	창립 이사회 개최 (직제 및 정원규정 제정(9.10), 1국4팀, 정원 16명)
2020. 10.	울주문화재단 출범
2020. 12.	직제개편 (1국5팀, 정원34명, 증18)
2021. 1.	3개시설 수탁(울주문화예술회관, 서울주문화센터, 울주생활문화센터)
2021. 7.	오영수 문학관 수탁 (직제개편, 정원37명, 증3)
2022. 1.	직제개편 (1국1실4팀→1국1실5팀, 정원42명, 증5)
2023. 1.	제2기 이사회 구성(11명) ※ 이사9, 감사2
2023. 3.	직제개편 (1국1실5팀→1국5팀, 정원39명, 감3)
2024. 1.	온양문화복지센터 수탁 (직제개편 1국5팀→1국6팀 정원47명, 증8)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문화예술 기반 조성	· 문화예술창작공간발굴 및 활성화 · 문화예술커뮤니티 플랫폼 강화 ·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 · 권역별 문화자원 조성
참여형 문화예술 확산	· 생활밀착형 콘텐츠 개발 및 생활문화 활성화 · 공연, 전시 공간 운영 활성화 · 콘텐츠 홍보마케팅 활성화 · 문화예술사업 환류 체계 구축
문화예술역량 강화	· 직제개편 (1국5팀, 정원3· 문화예술기획 역량 강화 · 전문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 지역문화브랜드 강화4명, 증18)
ESG 열린경영 실천	· 친환경 경영 강화 · 사회적 책임 경영 실천 · 경영관리체계 선진화

2. 조직 및 사무

가. 조직

1) 기구



2)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대표이사	사무국장	팀장·관장	4급	5급	6급	연구직	공무직
			2급	3급					
정 원	47	1	1	6	5	14	18	0	2
현 원	46	1	1	5	1	14	22	0	2

나. 사무

부서명	담당사무
경영기획팀	· 제·규정, 조직 업무 · 인권, 윤리경영 · 예산편성 및 지출, 결산 · 이사회, 자문위원회, 노사협의회 운영 · 인사·노무·계약·채용 관리 · 물품·자산·기록물 관리 · 경영평가 및 성과 관리
생활문화팀	· 울주동네축제/버스킹·전시 · 문화이음1번지 · 울주문화배달 “울주공연배달”, “문화놀이배달” · 울주문화거버넌스 “울!동네문화소통회”, “울!동네문화워크숍”, “울!동네한해스케치” · 울주 이바구 · 생활문화 연간 사업 추진
문예진흥팀	· 울주 공공미술 프로젝트 기획 운영 · 야간경관 전시 기획 운영 · 울주 피크닉 콘서트 기획 운영 · 울산옹기축제 기획, 옹기공모전 기획 운영 · 간절곶 해맞이 행사 기획 운영 · 다큐멘터리 <옹기를 찾아서> 제작
울주문화예술회관	· 울주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아카데미 운영 · 울주문화예술회관 기획 공연·전시 운영 · 울주문화예술회관 대관 관리 · 무대 음향, 조명 등 시설 유지 관리 · 공연·전시 안내 도우미 및 자원봉사자 관리
서울주문화센터	· 서울주문화센터 운영 및 아카데미 운영 · 오영수문학관 행사 기획 및 운영 · 서울주문화센터 기획 공연·전시 운영 · 서울주문화센터 대관 관리 · 무대 음향, 조명 등 센터 시설 유지 관리 · 공연·전시 안내 도우미 및 자원봉사자 관리
온양문화복지센터	· 온양문화복지센터 운영 및 문화강좌 운영 · 온양문화복지센터 기획 공연 운영 · 온양문화복지센터 대관 관리 · 무대 음향, 조명 등 센터 시설 유지 관리 · 공연 안내 도우미 및 자원봉사 관리

제2절 주요사업 추진현황

1. 울주동네문화생활

집필 • 울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김잔디
 집필 • 울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 차장 김초롬
 집필 • 울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 주임 김하영

가. 주민주도형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울주동네문화생활>

<울주동네문화생활> 사업은 울주군 12개 읍·면을 기반으로 다양한 생활문화동호회, 문화활동가, 주민공동체 등이 일상 속에서 직접 동네문화를 기획하고 즐기는 주민주도형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이다.

2023~2024년도에는 주민이 스스로 만드는 지역맞춤형 생활문화 축제인 「울주동네축제」를 비롯해, 공연·전시 분야 생활문화동호회의 소규모 버스킹 활동을 지원하는 「울주동네버스킹·전시」, 권역별 민간문화공간을 발굴하여 거점공간 활용을 지원하는 「문화이음1번지」 및 지역 문화예술 커뮤니티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울주문화거버넌스」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주민의 자발적 문화활동 확대 및 생활밀착형 콘텐츠 활성화

1) 동네문화배달 「울주동네축제」·「울주동네버스킹·전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기획하고 권역별 지역특색을 반영한 「울주동네축제」는 언양읍성축제, 상북열정축제, 갯골라운축제, 덕신소공원축제, 삼남그라지에페스티벌, 모두다 숲, 웅촌문

화축제, 선바위 공포체험축제 등 2년간 총 12회에 걸쳐 각 권역에서 개최되었다. 2023년과 2024년 각각 약 3,000여 명의 주민이 축제에 참여하였으며, 각 권역의 동네문화지기, 주민, 생활문화동호인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문화와 주민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울주동네버스킹·전시」 사업은 울주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동호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공연이나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26개 팀이 선정되어 48회의 공연과 전시를 진행하였고 2,974명이 관람하였다. 주민들의 높아진 관심으로 인해 2024년에는 36개 팀을 선정하여 64회 의 공연과 전시를 진행하였고 7,440명이 관람하였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가 지역 곳곳에서 펼쳐져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크게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2) 동네공간배달 「문화이음1번지」

「문화이음1번지」는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역별 민간문화공간을 발굴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년간 총 529회의 공간 대관을 통해 3,377명이 이용하며 주민들이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공간 운영자들이 문화 공간의 특성에 맞는 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1번지 사랑방’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동네 주민 간의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2024년에는 폐쇄된 근대문화유산 남창역(등록문화재 105호)을 문화이음1번지 공간으로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여 남창역의 옛 기억을 담은 ‘남창역 전성시대:김현호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이후 울주군청으로 해당 전시를 옮겨 7,300여 명의 관람객을 만난 바 있다. 앞으로 다양한 민간 공간과 공공 문화시설을 발굴하여 주민 문화 향유기회를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3) 동네문화키움 「울주문화거버넌스」

울주문화재단은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울주동네문화생활”을 만들기 위해 주민과의 지속적인 쌍방향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주민소통회, 문화워크숍, 네트워킹 데이, 포럼, 결과공유회 등을 통해 주민 중심의 문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330여명의 주민들을 직접 만나왔다. 이처럼 다양한 「울주문화거버넌스」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하고, 매년 울주 생활문화사업을 새롭게 변화·발전시켜왔다. 앞으로도 주민이 문화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진정한 울주 생활문화 거버넌스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다. <울주동네문화생활>의 주요성과와 향후계획

울주문화재단은 주민이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즐기는 울주동네문화생활 사업으로 「2023 전국 생활문화 우수사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2024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최우수상,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 박람회」 지역문화 우수사례 상 등을 수상하며, 울주 생활문화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하게 되었다. 더불어 <울주동네문화생활> 사업이 울주군민의 일상 속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난 2년간 축적된 사업 운영 경험과 참여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울주 생활문화 네트워크 확장과 협력 체계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단과 주민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울주 전역의 생활문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생활문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울주문화거버넌스



울!동네축제



울!동네버스킹·전시

2. 주민이 부르는 곳 어디든 “울주문화배달”

집필 • 울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김잔디
집필 • 울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 대리 오유진

가. 찾아가는 문화향유 프로그램 ‘울주문화배달’

울주문화배달은 일상 속 문화향유가 어려운 울주군민, 수혜처, 사회적약자, 문화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시키고,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울주문화배달은 찾아가는 공연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울주군민의 문화예술의 일상화를 지향하고 있다. 본 사업은 크게 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배달하는 ‘울주공연배달’과 찾아가는 문화 체험을 배달하는 ‘문화놀이배달’로 구성되어 울주군 어디서나 주민들의 삶 속에 문화예술이 스며들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나. 주민 일상으로 찾아가는 예술공연 <울주공연배달>

울주공연배달은 2024년 기준 총124회 공연배달을 추진하였으며, 약 44,000여명의 주민이 공연을 관람했다. 공연은 울산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전문예술단체 가운데 공모를 통해 선정된 23개의 팀이 맡았으며, 이 중 20팀이 청년예술단체로 지역 청년예술인들의 활동 기회 확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지역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26회 공연배달 추진하여 울주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더불어 대규모 공연배달인 <행복울주 배달콘서트>를 2회에 걸쳐 운영하여, 약2,400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하였다. 공연배달 관람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평균 93.1%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다. 주민 일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체험 <문화놀이배달>

문화놀이배달은 공예, 미술, 음악, 무용, 장르 융합, 음식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체험 콘텐츠를 직접 찾아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에게 생활문화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문화체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울주군 전역에서 총96회의 문화놀이배달이 추진되었으며, 3,800여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아울러 울주문화재단이 울산문화도시 구·군특화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한 <오늘의 반구대를 만나는 N가지 방법>을 통해 제작한 결과물을 개발된 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활용해 개발한 문화콘텐츠를 문화놀이배달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여, 지역문화자원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문화도시 울주 브랜드 확산에도 기여하였다.

라. 울주문화배달의 주요성과와 향후계획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한 울주문화배달은 울주군 12개 읍·면에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울주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 예술인의 활동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발전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접근성의 격차 해소에 노력해왔으며,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왔다. 2025년도에는 기존의 주민 대상의 문화배달을 넘어 울주군 소재 기업의 임직원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문화배달 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증진, 문화 사각지대 해소, 여가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실질적인 문화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울주문화재단은 주민들의 문화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선호도에 부합하는 맞춤형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울주공연배달



문화놀이배달



행복울주 배달콘서트

3. 「울주 이바구」 전국 공모전

집필 ● 울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김잔디
집필 ● 울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 대리 장지애

가. 울주군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전국민 대상 문학 공모전

『울주 이바구』는 울주군의 역사, 자연, 인물, 문화, 추억 등의 다양한 주제를 문학으로 만날 수 있는 전국민 대상 문학 공모전이다. 울주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문학으로 표현하고, 이를 문화적 자산으로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문화 브랜드 형성과 생활문화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23년에는 시와 수필 부문에 총 221편(시 141편, 수필 80편)이 접수되어 24편이 선정되었고, 2024년에는 공모 분야를 운문(시, 시조, 동시 등)과 산문(수필, 단편소설, 동화 등)으로 확장하여 총 212편(운문 124편, 산문 88편)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며, 울주만의 문화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나. 선정작 기반 파생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사업

선정작은 문학 작품집, 시화전, 엽서, 오디오북 등 다양한 형태의 문학 콘텐츠로 제작되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작품의 매력을 살린 삽화와 함께 발간된 문학 작품집은 ISBN을 발급 후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관내 공공도서관, 전국의 문학관, 문화기관 등에 널리 기증되었다. 2023년에는 72개소, 2024년에는 75개소 기관에 문학집이 배포되었다. 릴레이 시화전시는 울주군청, 울주생활문화센터, 온산 한마음회관, 울주선바위도서관 등 관내 문화공간 10개소(2023년) 및 11개소(2024년)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각각 약 14만 명과 13만 명이 관람하였다. 엽서도 함께 제작·배포되며 문학과와의 일상적 접점을 넓혔다.

다. 포용적 문화향유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

2024년에는 시각장애인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6편의 수상작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기부하였다. 또한 해당 콘텐츠는 온라인에 공개되어 전국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울주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울주 이바구』는 다양한 시민의 관점으로 울주의 이야기들을 문학으로 표현하고, 이를 원천콘텐츠로 활용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울주의 문화 정체성과 생활문화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어 지역 대표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화 전시(울주선바위도서관)



수상작 문학집

4. 울주청년문화프로젝트 「청년문화잇소」

집필 ● 울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김잔디
집필 ● 울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 대리 장지애

가. 청년 주도형 문화 프로젝트 기반 조성

『청년문화잇소』는 울주군 청년들이 원하는 문화를 스스로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울주에 청년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청년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관계 중심의 커뮤니티 형성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주요 축으로 삼았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44회의 프로젝트가 운영·발표되었으며, 약 28,000여 명이 참여하였다.

나. 청년 관계 확장을 위한 〈청년 관계 중심 프로젝트〉

청년문화잇소의 관계중심형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지역 공간을 새롭게 인식하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관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지역 마을 탐방, 커뮤니티 모임,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문화 활동이 운영되었다.

〈상북청년네트워크 청높-스마일 상북〉은 상북면 일대를 여행하고 기록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과 함께하는 마을여행과 청년 주도의 문화강의가 진행되었다. 〈글쓰기모임W-살롱 드 울주〉는 글쓰기와 대화를 통해 지역 청년 간 교류를 강화한 커뮤니티 형성 프로그램으로, 타지 청년과의 교류회 및 한옥스테이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었다. 〈별난작당-울주 Create&Connect〉는 남창역 인근 이야기를 콘텐츠로 개발하여 동화책으로 제작하였으며, 결과물은 울산문화박람회, 울주남부청소년 수련관 전시회를 통해 시민과 공유되었다. 〈커튼콜-한 사람을 위한 영화〉는 청년들의 감성을 담은 단편영화 상영과 관람자 간 편지 교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다. 청년들이 만드는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 <힙하게 만나는 N개의 남창역>

「힙하게 만나는 N개의 남창역」은 울주의 근대문화유산 남창역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창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역자원을 청년들이 다양한 전시, 체험, 공연으로 개발하여 2020년 폐쇄된 구남창역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해석하고,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헌양사람들공방-역사와 추억을 품은 남창역>은 패브릭 아트 전시 및 자개키링·달력 제작 체험을 통해 남창역의 정서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였다. <은가비공방-남창역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계절별 테라리움 전시와 체험을 통해 남창역의 감성을 시각화하였고, <우드메이드-인생 역전을 꿈꾸는 게임>은 목공예 놀이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갯브라스유-남창역 전성시대의 '희망'을 연주하는 브라스 밴드>는 70년대 음악을 활용한 거리 브라스 밴드 공연을, <본때크루-'사랑'을 이어주는 남창역 앞 스트리트 댄스>는 실제 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한 스트리트 댄스 공연을 진행하여 남창역을 감성적인 공연 무대로 전환시켰다.

해당 프로젝트는 울산문화박람회 울주군 특별전시관 운영과 연계하여 약 13,000명의 외부 관람객에게 울주 청년문화를 소개하고, 지역 청년들이 만들어낸 콘텐츠의 공공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청년문화프로젝트 운영

5. 문화도시 울산 조성 구·군 특화사업

집필 ● 울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김잔디
집필 ● 울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 차장 김초롬
집필 ● 울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 대리 장지애

가. 문화도시 울산 조성을 위한 울주군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울주문화재단은 문화도시 울산 조성의 일환으로 울주군의 대표 문화자원인 반구대 암각화와 남창역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2023년에는 반구대 암각화를 주제로 「오늘의 반구대를 만나는 N가지 방법」을 통해 공연, 체험, 전시, 문화상품 등 9종의 콘텐츠를 발표하고 11,270명이 참여하였다.

2024년에는 남창역을 활용한 「인생역전프로젝트 : 남창역 전성시대」를 통해 공연 3종, 체험·상품 10종 등 총 14종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약 15,500명이 참여하였다. 두 사업을 통해 울주의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총 23종의 콘텐츠가 제작되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울주의 소중한 문화자원을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오늘의 반구대를 만나는 N가지 방법

2023년 울주문화재단은 울주군의 대표 문화자원인 반구대 암각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일상 속 생활문화로 확산하기 위한 특화 콘텐츠 사업으로 「오늘의 반구대를 만나는 N가지 방법」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생활문화동호회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총 5개 단체의 공연 및 체험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공연 분야에서는 「울주 이바구」 공모전 수상작 ‘이바구 속으로’를 바탕으로 울산광역시국악관현악단이 창작한 국악·성악곡 〈반구대를 노래해요 - 이바구 속으로〉와, ‘울주소녀 정우와 반디’를 원작으로 한 콘소란테소나레의 관객참여형 가족 뮤지

컬이 무대에 올랐다.

체험·전시 분야에서는 현양사람들공방이 반구대 문양을 활용한 손수건과 생활한복을 제작·전시하였고, 작은변화는 반구대유치원&놀이터를 테마로 한 유아 대상 동물놀이 교구를 개발하였다. 아름드리는 ‘오늘의 내가 새기고 싶은 말’을 판화로 제작하고 손도장을 활용한 2024년 달력 체험을 운영하며 시민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콘텐츠는 ‘울주생활문화센터 in보리 너부문화장터’와 ‘2023 울산문화박람회’ 등에서 선보여졌으며, 약 11,270명의 시민이 관람·체험에 참여하였다. 본 사업은 반구대암각화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연과 체험, 전시, 문화상품 등 다양한 형태로 일상 속에 녹여내며, 울주군 문화자원의 현대적 재해석과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 인생역전프로젝트 : 남창역 전성시대

2024년에는 울주만의 고유한 문화·역사적 가치 재조명을 위해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105호 남창역을 소재로 지역성과 독창성을 갖춘 울주군 특화 문화콘텐츠 「인생역전프로젝트 : 남창역 전성시대」를 기획하였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극단 푸른가시, 본때크루, 현양사람들, 은가비공방, 우드메이드 등 다양한 지역예술인 및 문화활동가가 함께 협업하여, 시민 참여 기반의 문화도시 울산 조성에 기여하였다.

2024 울산문화박람회 참가에 앞서 10월에 개최된 ‘남창역 시연회’에서는 남창역 구역사와 KTX 신역사, 남창옹기종기시장까지의 남창역 일대 전체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이동형 관객몰입형 공연, 사진전,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선보였다.

‘2024 울산문화박람회’에서는 희망, 사랑, 행복을 주제로 자개로 만드는 남창역, 테라리움으로 키우는 남창역, 남창역 달력 만들기, 나에게 엽서 쓰기, 인생역전다방, 목공놀이 등 총 14종의 문화콘텐츠(공연 3종, 체험·상품 10종, 전시 1종)가 운영되었다.

약 15,500여 명의 관람객이 남창역 문화콘텐츠를 향유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울주군 고유 문화자원을 지속 가능한 콘텐츠로 재해석하고, 지역문화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울주군은 남창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문

화로 잇는 새로운 문화적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3 in보리 너부장터



2024 울산문화박람회



2024 울산문화박람회

6. 울주생활문화센터 운영

집필 ● 울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김잔디
집필 ● 울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 주임 이은비

가. 울주생활문화센터 소개

울주생활문화센터는 울주군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문화 활동을 접하고, 나누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조성된 생활문화 거점 공간이다. 카페테리아, 동아리실, 마루공간, 책다방, 도예실, 목공실, 음악연습실, 사랑방 등 다양한 생활문화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생활



울주생활문화센터 전경

문화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개관 이후, 주민 주도의 생활문화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예술 동아리의 자발적 활동과 협업을 통해 지역 문화 생태계가 점차 구축되며 2024년 한 해 동안 총 9,311명이 울주생활문화센터의 공간을 대관하여 이용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공공도서관이 없는 두서면 지역 주민들이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센터 1층 로비에 ‘인보리 책다방’을 신설하여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문화 기반 확충에 힘썼다. 책다방은 운영 4개월 만에 3,300여명이 이용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 공동체 형성과 자율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울주생활문화센터는 일상의 문화화를 실현하는 지역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나. 프로그램 운영

1) 동네공간배달 ‘in보리 너부문화장터’

in보리 너부문화장터는 울주생활문화센터를 거점으로, 지역 주민과 생활문화동호회가 함께 만든 복합 문화장터로서 6월과 10월, 총 2회에 걸쳐 운영되었다.

‘시장이 없는 인보리 마을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생활문화인의 재능 발표를 결합한 문화장터’라는 기획 아래, ‘인보리 최대 에코장터’, ‘매일 가던 뻘한 문화센터가 fun한 문화장터로!’,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공연, 전시, 체험’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진행된 행사는 총 1,181명이 참여하며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in보리 너부문화장터(장터)

장터에서는 인보 농민들이 수확한 감자, 부추, 고추 등 싱싱

한 농산물과 함께 도토리묵, 두부, 꽃차, 참기름 등 가공식품, 목공예품과 휴지, 화초 등 다양한 공예품, 공산품 등 50여 종이 판매되었으며, 방문객들은 믿고 살 수 있는 지역 먹거리와 공예품을 직접 구매하는 기회를 가졌다.

더불어 울주생활문화센터에서 활동 중인 생활문화동호회 및 아카데미 수강생들의 공연과 작품 전시, 도예와 목공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어 문화향유와 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in보리 너부문화장터(공연)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과 전시, 체험, 장터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생활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in보리 너부문화장터는 지역 주민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 속에 마무리되었다.

2) 울생동네잔치 ‘놀이와 울생’

2024년 12월, 울주생활문화센터에서는 연간 운영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인 울생동네잔치 ‘놀이와 울생’을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아카데미 수강생, 생활문화동호인, 지역 주민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며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고 교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놀이와 울생

행사는 두서어린이집 원생들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되었으며, 울주생활문화센터의 연간 운영 성과를 함께 나누는 시간과 각자가 준비한 음식을 나누는 포트럭 파티,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생활문화 활동 속에서 느낀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센터를 중심으로 형성된 커뮤니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7. 군민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한 <울주 공공미술 프로젝트>

집필 • 울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서민지
집필 • 울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 대리 박혜진

가. 예술이 함께하는 울주를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울주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유희부지 및 지역 고유성이 특화된 공간에 야외 전시를 추진함으로써, 울주군의 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복리 증진 및 전문 예술인 활동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전시 사업이다. 지난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전시를 추진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울산옹기축제, 하반기에는 간절곶 해맞이 행사와 연계하여 전시를 추진함으로써,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높였다. 또한 독창적이고 창의적 전시작품으로 일상 생활속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와 관심을 제공하고 단순한 전시 관람을 넘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예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매 해 다른 전시 컨셉 추진으로 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예정이다.



2024 상반기 전시(대화의 장소)



2024 하반기 전시(간절곶:비밀의 정원)

8. 한반도의 첫 아침을 열다 <간절곶 해맞이 행사>

집필 ● 울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서민지
집필 ● 울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 대리 심시온

가. 새해 한반도 첫 일출의 상징 ‘간절곶’에서 열리는 소망의 해맞이

<간절곶 해맞이 행사>는 매년 1월 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간절곶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새해 해맞이 행사로,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뜨는 해를 만나기 위해 많은 해맞이객이 방문한다. 해맞이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방한텐트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히 2024 간절곶 해맞이부터 특별 프로그램 ‘간절곶, 한반도의 첫아침을 열다’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인기가수 공연과 함께 불꽃쇼, 드론라이트쇼를 선보였다. 울주군여성단체협의회와 협력해 따뜻한 떡국 1만 명 분을 준비해 해맞이객에게 대접한다. 대규모 인파의 안전을 위한 안전·교통 통제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고의 일출 명소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안전한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간절곶 해맞이 행사

9. 울주군 일출 명소 브랜드 강화를 위한 <야간경관 전시>

집필 • 울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서민지
집필 • 울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 대리 박혜진

가. 다양한 조형물 설치 및 환경 조성을 통한 해맞이 명소 이미지 제고

<야간경관 전시>는 울주군의 일출 명소 브랜드 강화를 위하여 야간 조명 및 빛 조형물을 전시하여 간절곶에서 첫 해가 뜨는 아침부터 밤까지 희망의 빛을 전시한다. 야간경관 전시는 해맞이 관광객을 위하여 간절곶 공원에 관람객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빛을 통하여 생동감 있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도에는 청룡의 해를 맞아 대형 청룡 유등을 설치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간월재 역새, 반구대 암각화 등 울주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로 미디어 아트와 조형물을 설치하여 자연적,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전달하였다. 앞으로도 울주문화재단은 매해 새로운 전시 기획으로 다양한 전시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3 야간경관 전시 <간절곶의 사계>



2024 야간경관 전시 <빛으로 새긴 울주>

10. 울산옹기축제

집필 • 울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서민지
집필 • 울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 대리 이영우

가. 울산 유일의 문화관광축제 <울산옹기축제> 개최

2023년 개최된 제23회 울산옹기축제는 우천 상황속에서도 주민들의 협조와 관람객들의 관심 속에 잘 마무리 되었다.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하여 2023 울산옹기축제는 총 43개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우천으로 인해 야외 프로그램을 실내로 변경하면서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게 축제를 마무리하였다. 악천후에도 주민참여공연 ‘나도 옹기스타’와 ‘주민자치공연단’의 공연으로 볼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었고, 해외교류를 통해 타국의 도예가들과 울주의 옹기장인들이 만나는 교류의 장이 열리기도 하였다.

2024년 울산옹기축제는 과정이 중시되는 축제, 지속 가능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주민기획단을 구성하여 주민들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축제를 운영하였다. 주민기획단 ‘옹해야’는 체험, 공연, 전시, 홍보 각 파트별로 나뉘어져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여 주민주도성을 높일 수 있었다. 흙을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는 <흙놀이터>, 장인이 옹기를 만드는 광경을 눈 앞에서 보고 직접 옹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옹기특별체험관>, 옛 옹기마을 전성기를 보여주는 폐공장을 활용한 전시 공간 <움직이는 옹기공장> 등 옹기마을만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은 다른 축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확실한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13만명이 다녀간 2024 울산옹기축제는 특히 힐링 프로그램 <옹기 For:rest> 불명은 옹기마을에만 있는 가마를 활용하여 불을 보며 힐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옹기축제와 외고산 옹기마을의 특성을 잘 살린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었다.

2025 울산옹기축제는 24년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과 주민주도성을 핵심가치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예정이다. 특히,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많은 관람객들이 축제를 즐기고 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개막식



옹기 특별체험관



움직이는 옹기공장

11. 울주오디세이

집필 • 울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서민지
집필 • 울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 주임 신영종

가. 간월재 정상에서 펼쳐지는 특별 공연

역새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10월, 울주군의 대표 관광명소인 신불산 간월재 정상에서 열리는 산상 음악회는 자연과 사람,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행사이다. 자연 그대로의 무대를 배경으로 방문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공연 구성과 연출을 통해 간월재를 차별화된 명소로 탈바꿈시킨다.



2023 울주오디세이

특히 지역 예술가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진 가수들과 함께하는 이 공연은, 산 정상에서 펼쳐지는 전국에서도 드문 사례로 손꼽힌다. 2023년과 2024년 각각 13회, 14회를 맞은 울주오디세이는 각각 2,000여명과 3,000여 명에 이르는 관

람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였으며, 2023년에는 가수 국카스텐을 중심으로 송창식&함춘호, 라포엠, 신영숙, 은가은 등 다양한 아티스트가 무대를 빛냈고, 2024년에는 손태진, 박창근, 소찬휘, 정동하 등 장르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출연진을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의 문화적 자긍심을 한층 더 고취시켰다.

2025년에도 본 공연은 10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어우러지는 음악회로 다시 한 번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할 계획이다.



2024 울주오디세이

12. 울주 피크닉 콘서트

집필 ● 울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서민지
집필 ● 울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 대리 박혜진

울주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봄, 가을 계절의 정서를 만끽할 수 있도록 기획한 소풍컨셉의 야외 콘서트이다. 2024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울주의 권역별

다양한 야외공간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또한 장르별 출연진을 다채롭게 구성하여 울주군민에게 활기를 선사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고자 기획되었다.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음악의 감동을 선사하고 야외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가족, 친구, 연인 등 누구나 즐겁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2024 상반기 공연(유월의 밤)



2024 하반기 공연(가을 한 장)

13. 다큐멘터리 제작 프로젝트 <옹기를 찾아서>

집필 ● 울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서민지
집필 ● 울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 주임 신영종

가. 옹기마을과 옹기장인을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추진

옹기마을과 옹기장인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점차 사라지고 침체되어가는 옹기문화와 옹기장인에 대한 영상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기록하는 프로젝트이다. 단순한 기록을 넘어, 완성된 다큐멘터리를 국내외 영화제에 출품함으로써 옹기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시키고,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제고하고자 하였다. 다큐멘터리 제

작은 2024년도에 착수하여 2025년 5월까지 제작과 편집을 완료하고, 이후 다양한 국내외 영화제에 지속적으로 출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옹기문화의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유산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옹기를 찾아서

14. 울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전시·교육

집필 • 울주문화재단 울주문화예술회관장 이동우

가. 울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울주문화예술회관은 2009년 11월에 개관한 울주군 최대의 문화시설로 지금은 (재)울주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392석(장애인석 포함) 규모의 공연장 ‘그린나래홀’은 프 로시니엄 아치를 가진 오페라극장으로 지어졌지만 반사음판을 무대에 둘러 기악공연도 훌륭하게 소화하고 있다. 대형 오



울주문화예술회관 그린나래홀

페라나 뮤지컬을 개최하기에는 다소 좁은 무대라 수준급 연주자의 솔로 콘서트와 앙상블 공연, 그리고 중소형 극예술 공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작지만 강한 극장’을 실현하려고 노력 중이다.

1) 프리미엄 콘서트

국제 콩쿠르 우승자 등 최정상급 클래식 아티스트 초청하는 공연이다. 2023년 12월 송년 콘서트 <용재오닐의 선물>을 필두로 2024년 3월에는 바그너 오페라 최고의 베이스 가수와 반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가 함께한 <연광철-선우예권 듀엣 콘서트>, 9월에는 부조니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12월에는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출연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바이올린 연주자 대니구를 초청하여 <대니구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이브 콘서트>를 열었다. 2025년에는 2021 쇼팽콩쿠르 우승자 브루스 리우(5월), 2015 차이콥스키 콩쿠르 피아노 부문 우승자 드미트리 마슬레예프(6월), 베를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5인조 단원(퀸텟)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이들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방문으로 울주문화예술회관은 울산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연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연광철-선우예권 콘서트

2) 신년음악회

빈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매년 1월 1일 뮤직페어라인 황금홀(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에서 개최하는 신년음악회는 전 세계 5억여명이 동시에 지켜보는 글로벌 음악프로그램이다. 왈츠음악으로 활기차게 신년을 열어젖히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는 2024년 개관 이래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신년음악회를 진행했다. 이태운이 지휘하는 울주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바이올리니스트 박진수와 첼리



김동규와 함께하는 신년음악회

스트 조운경(일명 첼로덕)이 협연했다. 후반부는 세계적인 바리톤 김동규와 계명대학교 이윤경 교수가 아름다운 오페라 아리아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2025년에도 신년음악회는 이어진다. 뮤지컬 스타 민우혁을 메인 게스트로 울산지역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이종은 유니스트 교수와 러시아 출신의 아코디언리스트 알렉산더 웨이킨이 협연한다.

3) 음악살롱.울주

2024년에는 매마수(매월 마지막 수요일) 브랜드 음악회였던 <하우스콘서트>가 이름을 바꿔 <음악살롱.울주>로 새롭게 선보였다. 관객소통형 공연을 표방하면서 2월부터 11월까지 매마수에 부담없이 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베이스 구본수(2월), 해금 연주자 조혜령(3월), 색소포니스트 릭 벤메이어(5월), 첼리스트 권새롬(6월), 바로크 연주단 도미누스 바로크(10월) 등이 출연했다. 2025년에는 <8시 클래식>으로 이름을 바꾼다. 정통클래식 뿐만 아니라 기악, 국악 등과 함께 크로스 오버를 시도한다.



음악살롱.울주

4) 잔디마당 콘서트

2023년 울주문화예술회관 앞마당에 인조잔디를 심으면서 그해 여름 시작된 잔디마당 콘서트는 '잔콘'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면서 울주 주민들의 생활밀착형 공연문화로 자리 잡았다. 2023년 8월부터 5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2024년에는 5월부터 총 9회 공연했다. 2025년에는 총 8번의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며, 울주군 범서읍의 물내음공원과 울주문화예술회관 앞마당에서 각각 4번씩 진행된다.



잔디마당 콘서트

5) 울주시네마

개봉작 상영관이 마땅치 않은 울주에서 어린이 가족 영화를 상영하는 <울주시네마>는 토요일의 인기프로그램이다. 2023년에는 디즈니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알라딘, 루카, 몬스터 주식회사 등 디즈니의 작품만 10편을 엄선하여 상영했다. 2024년에는 1일 상영회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했다. 2025년에는 <토요어린이시네마>로 이름을 바꿔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두 번째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2회씩 총 14회 상영한다.



울주시네마

나. 울주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전시장 채움갤러리는 약 30평 규모로 개인전에 최적화된 공간이다. 상반기에는 기획전시와 1호작품 미술장터, 하반기에는 울주아트지역작가초대전이 진행된다.

1) 기획전시

2024년 3월 혼자수라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세계적인 아티스트 이용주 작가를 초청하여 <교과서에 나오는 세계 명화전>을 개최했다. 비너스의 탄생, 키스,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명작품을 현대자수 기법으로 완성한 작품 17점을 채움갤러리에서 선보여 전시장 개관 이래 가장 많은 3,800여명의 관객방문을 이끌어냈다. 2025년에는 세계적인 한지조형예술작가 로즈박을 초청하여 <꽃피는 봄이 오면>을 개최한다.



이용주 혼자수 특별전

2) 1호작품 미술장터

1호작품 미술장터는 2024년 처음 개최되었다. 지역민들이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활발히 소비하고, 이런 예술작품 거래가 일상이 되는 문화를 만들어보기 위해 기획되었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 257점이 출품되어 약 60%인 148점이 판매된 것이다. 판매가격은 균일가 10만원이다. 관객들은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으면 바로 가져갈 수 있다. 판매작품을 전시가 끝날 때까지 반출하지 않는 관례를 깬 것이다. 2024년의 성공에 힘입어 2025년에 시즌2를 이어간다.



1호작품 미술장터

다. 울주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교육

1) 인문예술아카데미

2023년 가을, 개관 이래 처음으로 인문학강좌 인문예술아카데미를 개설했다. 내 삶을 스스로 성찰해보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인문학과 고급예술을 좀 더 잘 소비하기 위한 지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초 라인업은 예술영화(박흥식 감독), 클래식 음악(이동우 관장), 현대미술(고경래 교수), 심리학(김진국 교수로) 구성했다. 2024년에는 상·하반기 각 3개 강좌를 열어 확장했다. 상반기에 와인 인문학(손관승 대표), 음식 인문학(권은중 대표). 하반기에 논어(김진국 교수), 그리스로마신화(강대진 교수)가 개설되었다. 수도권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강사들을 영입하여 군민들의 인문학 교육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강의 만족도를 높였다. 2025년에는 지역에서 강의 역량이 탁월한 강사도 발굴하여 초빙할 예정이다.



인문예술아카데미

2) 10인10색 여름밤 인문학

2024년 여름에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격으로 개설한 강좌다. 각기 다른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유명강사 10명을 초빙하여 릴레이 강좌를 열었다. 서울예술의전당 예술아카데미에서 10년이 넘도록 일타강사의 지위에 있는 이진숙,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를 출간해 화제를 모은 인천대 이노은 교수, 2021년 반클라이번 아마추어 피아노 콩쿠르에서 세미 파이널에 오른 정연욱 변호사, KBS 드라마 PD를 지낸 엄기백 감독이 특히 인기를 끌었다.



10인10색 여름밤 인문학

15. 울주문화예술회관 예술지원 <신박한 예술지원해DREAM>

집필 • 울주문화재단 울주문화예술회관장 이동우

1) 신박한예술지원해DREAM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예술단체의 실질적인 예술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신박한’이란 이름에 걸맞게 지역예술단체를 제작 전반과 홍보에 전방위 지원한다. 2024년부터는 극예술분야 2팀과 음악회 분야 2팀을 선정하여 단체당 평균 2천만원 이상의 제작비 지원을 실



신박한 예술지원해DREAM

현했다. 공연에 임박해서는 연습실 무료 제공, 회관 회원들에 대한 문자 발송 등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규모는 작지만 출연자와 무대 미학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수준급 작품들이 탄생했다. 2025년에는 공연단체 뿐만 아니라 미술단체도 지원하여 사업규모가 확장된다.

2) 울주아트지역작가 초대전

울주아트 지역작가 초대전은 울주군을 거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우수한 지역작가를 발굴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과 2024년 모두 8명(장애인 작가 1명 포함)의 지역작가를 선정하여 지원(지원금 300만원)했다. 2025년에는 선정작가를 8명에서 10명으로, 지원금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렸다. 울주문화예술회관 채움갤러리는 하반기에 지역작가들의 릴레이 전시로 군민들의 일상적인 예술향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울주아트 지역작가 초대전

16. 꿈의 무용단 울주

집필 • 울주문화재단 울주문화예술회관장 이동우

꿈의무용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대표 교육사업인 ‘꿈의’ 시리즈의 두 번째 프로그램이다. 울주문화예술회관은 2024년 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5년간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수준높은 무용교육

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무용감독은 국립현대무용단의 시즌단원을 두 차례 역임한 바 있는 실력과 무용수 한상률씨가 맡았다. 2024년에는 25명의 단원(취약계층 50% 포함)을 모집하여 총 83차수의 교육을 시행하여 11월 9일 첫 공연을 선보였다.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져 있는 고래에 모티프를 두고 단원들이 스스로 만들어 낸 안무를 공연에 활용했다. 2025년에는 울주옹기를 모티프로 커리큘럼과 창작공연을 진행한다.



꿈의 무용단 울주

17. 서울주문화센터 기획공연

- 집필 • 울주문화재단 서울주문화센터 센터장 최연수
- 집필 • 울주문화재단 서울주문화센터 대리 유지홍
- 울주문화재단 서울주문화센터 대리 정채목

가. 서울주문화센터 기획공연

1) 울주 SingSing 가요무대

어르신들이 웃으며 함께 노래를 배우는 과정 속에 행복감과 삶의 활력을 찾도록 문화예술향유와 유대감 강화를 목적으로 2024년 처음으로 기획되었다. 프로그램 구성은 가수 수근에게 배우는 노래교실과 매회 새로운 초대가수의



미니콘서트로 약 90분간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회차는 국내정상급 가수를 초청하여 가요 콘서트로 진행되었다. 상반기(7회), 하반기(7회) 총 14회 과정으로 운영되었으며, 상반기 2,219명, 하반기에는 2,254명이 노래교실을 이용하여 총 4,473명의 중장년층이 <울주 싱싱 가요무대>에 참여였다.

2) 딤치 클래식 콘서트

<딤치(Dinner+Lunch의 합성어) 클래식 콘서트>는 매월 주말 오후에 진행되는 해설이 있는 클래식 콘서트로, 명쾌한 해설과 국내 정상급 출연진을 구성하여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클래식을 감상할 수 있는 서울주문화센터의 대표 클래식 콘텐츠이다. 약 80분동안 진행되며 다양한 시대의 음악 이야기와 음악가들의 인생들을 담아낸 해설로 관객들의 음악에 대한 이해도를 돕고 클래식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2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를 진행하였으며 총 1,186명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딤치 클래식 콘서트> 9월
#피아노의 회상

3) 뮤지컬의 밤

<뮤지컬의 밤>은 대형뮤지컬 작품을 작품해설과 함께 뮤지컬 영화를 시청하는 스크린 콘서트로 기획되었으며,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전 울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김종규의 해설과 함께 다양한 뮤지컬 작품을 상영하였다.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를 무료로 운영하였으며, 총 2,519명이 관람하여 높은 문화적 욕구와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던 스크린 콘서트였다.



4) 7080 통기타 콘서트

〈7080 통기타 콘서트〉는 50~70대 주타겟층 공연으로 중장년층의 예술 갈증 해소 및 옛 추억을 회상하는 대중음악 공연이다. 포크계를 대표하는 그룹 소리새, 녹색지대의 권선국, 포크계의 대부 임지훈, 김희진 출연으로 그 시대를 지나온 사람들에게는 추억을, 젊은 세대들에게는 흘러간 명곡을 공감하는 무대였다. 1회 공연 297명으로 매진을 기록하며 중장년층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연이었다.



5) 어린이 뮤지컬 〈목 짧은 기린 지피〉

〈목 짧은 기린 지피〉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즐기는 어린이 뮤지컬로 그림 작품을 감상을 통해 ‘다른 틀림이 아니다’는 ‘다양성 존중’과 편견 없이 다양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중요성을 어린이들이 생각해 보게 되는 예술성있는 뮤지컬 작품이었다. 1일 2회 600석이 매진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6) 야외광장 버스킹 콘서트

〈야외광장 버스킹 콘서트〉는 서울주문화센터의 야외광장을 활용하여 누구나 거리감 없이 가까이 앉아 볼 수 있는 거리공연으로 기획되었다.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는 레퍼토리로 구성되었으며, 실내가 아닌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전문 연주단체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연주자와 관객 간의 친근감을 증대시키며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에 스며드는 계기가 되었다. 6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 운영되었으며, 우천 시에는 공연장 안에서 진행되었다. 관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하며 누적관객 1,108명을 기록하였다.



7) 수험생 힐링 매직쇼 「매직 프레젠티」

수능을 마친 관내 고3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격려로 새로운 앞날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된 <매직 프레젠티>는 울주문화예술회관, 서울주문화센터, 온양문화복지센터 3개의 공연장에서 진행되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지금(Present)’이 최고의 ‘선물(Present)’임을 이야기하는 마술 및 퍼포먼스로, 마술, 저글링, 레이저쇼 등 화려한 볼거리로 준비하였다. 서울주문화센터에서는 연양고등학교 수험생 195명이 관람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을 실천하고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8) 송년 음악회「Musical GALA」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음악회<뮤지컬 갈라>로 기획되었으며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 초청하여 지역민에게 품격있는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다양한 연령대를 포용할 수 있는 차지연, 정영주, 포르테 디 콰트로(김현수, 이벼리)이 출연하였으며 ‘살다보면’, ‘댄싱 퀸’ 등 유명한 명곡들을 노래하였다. 티켓 오픈 2분만에 292석 전석이 매진되었으며, 울주의 문화예술에 대한 잠재수요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9) 서울주문화센터 기획행사 「울주 키즈 아트 페스티벌」

8월 흑서기 찰통 무더위를 피해 서울주문화센터에 방문하여 문화예술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활동을 통해 울주 지역 어린이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예술과 즐거움을 누리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



으며, 약 3주간 서울주문화센터는 어린이들의 즐거운 문화놀이터로 변신하였다.

UKAF(키즈아트페스티벌) 시네마, 우와마술쇼, 흥겨운동요, 고사리손으로 만들어 보는 체험 모루인형 만들기, 이끼액자 만들기, 과자 풀라주, 내가 그림 작품이 전시실에 걸리는 내 모습어 때요, 체험형 전시 손바닥 도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예술성, 재미까지 잡은 울주 키즈 아트 페스티벌은 전시 2,060명, 체험 1,385명, 전시 2442명 총 5,887명이 방문하며 서울주문화센터의 대표 어린이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8. 서울주문화센터 기획전시

집필 ● 울주문화재단 서울주문화센터 센터장 최연수
집필 ● 울주문화재단 서울주문화센터 대리 유지홍

가. 서울주문화센터 기획전시

1) 울주 올라운더 초대전

지역작가 그룹의 전시 작품을 통해 군민과 관람객들에게 울주의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일상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작품으로 문화예술적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동양화, 판화, 서양화, 공예, 서예 등 다양한 장르를 전시하였으며, 주요 전시로는 울주군지역 장애예술인과 청년작가들의 독창적인 시각과 해석을 선보이는 전시가 있다.



2023년 8회 운영하여 누적관객 2,459명, 울주지역작가 60명이 참여하였다. 2024년 7회 운영되어 누적관객 2,918명, 울주지역작가 60명 참여하여 전시가 운영되었다.

2) 어린이 체험전

어린이 체험전은 울주군 지역의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 2024년 첫 기획된 전시이다. 가족이 함께 체험에 참여하여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감각을 깨우는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전시, 체험, 교육의 놀이터로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문화접근 기회 보장을 통해 문화격차 해소하도록 하였다. 인근 어린이집 26개소가 전시체험에 참여하여 많은 원생들이 관람을 하였으며 관람인원은 총 3,260명이다. 참여 작가는 울주군 거주 작가 2인으로 향후에도 다양한 작가와 연계해 많은 지역예술인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3) 미디어 아트-르누아르展

이번 전시는 2024년 첫 기획된 전시로 19세기 프랑스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르누아르의 작품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미디어아트로 재현된다. 대표작으로는 '물랭 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 '두자매', '피아노 치는 소녀들' 등이 있다. 색채의 풍부함과 사람과 자연 등 주제의 다양화를 특징으로 르누아르의 작품 속 인물들이 생기 넘치고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표정을 볼 수 있다. 다양한 빛과 색채를 따라 걸으며 다양한 빛의 효과를 즐길 수 있는 전시이다.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이해하고, 향후 미디어아트라는 장르로 문화적 수준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관람 인원은 총 2,300명이다.



4) 야외 경관전시

주민들이 센터를 오가며 야외광장을 문화예술쉼터 공간으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야외전시이다. 조각 전시와 함께 야간 경관조명 연출은 연말연시 센터를 방문하는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공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조명 및 조각 연출을 통해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소양 증진에 기여하고 군민을 위한 문화센터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관람인원은 2023년 3,700명 2024년 3,600명이다.



19. 서울주문화센터 문화예술아카데미

집필 ● 울주문화재단 서울주문화센터 센터장 최연수

집필 ● 울주문화재단 서울주문화센터 대리 서동진

서울주문화센터 문화예술 아카데미

2024년 서울주문화센터 문화예술 아카데미는 울주군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음악·미술·댄스·영유아/어린이 강좌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총 21개 강좌가 운영되었으며, 연간 총 12,400명의 수강생이 참여하였다.

특히 고령층과 주부, 청장년층, 어린이 등 다양한 연령대의 수요를 반영한 강좌 편성은 수강생 만족도 4.6점(5점 만점 기준)이라는 높은 평가로 이어졌으며, 문화예술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세대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생활권 내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으며, 권역별 문화거점 공간으로서 서울주문화센터의 기능을 강화한 계기가 되었다.

2024년 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확대, 특별기획 프로그램 운영, 문화소외계층 대상 강좌 강화 등 더욱 다채롭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 예술강사 및 주민강사 발굴을 통해 울주군의 자생적 문화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서울주문화센터 문화예술 아카데미는 단순한 여가 강좌를 넘어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군민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20. 오영수문학관 운영

집필 ● 울주문화재단 서울주문화센터 센터장 최연수

집필 ● 울주문화재단 오영수문학관장 최인식

집필 ● 울주문화재단 서울주문화센터 대리 박강림

가. 문학관 소개

울산 울주 언양 출신 소설가 난계 오영수 선생의 문학정신이 깃든 오영수문학관은 육필원고와 편지, 창작집, 교과서 수록작, 테스마스크 등 2,000여 점의 유품을 소장하고 있다. 문학관은 전시실을 비롯해 작은 도서관 형태의 문화사랑방, 다목적홀인 난계홀, 야외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다.



오영수문학관 전경

2020년에는 (사)한국문학관협회로부터 ‘올해의 최우수문학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4년 1월 21일 개관 이후 2024년 말 기준 누적 관람객 수는 20만 명을 넘었다.

나. 프로그램 운영

1) 난계창작교실

문학에 관심 있는 지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문학 수업 기회 제공을 위해 2016년 개설된 ‘난계창작교실’은 2024년 현재까지 9기 수료생을 배출했다. 지역 문화 기반의 지속 가능한 문학교육 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동아일보, 조선일보 신춘문에 당선자를 배출하는 등 총 45명 정도가 문단에 데뷔하는 성과를 이루어 등단의 산실로서 명성을 얻고 있다.



제9기 난계창작교실 개강

2) 길 위의 인문학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화장산 숲 그늘에서 노닐다’를 주제로, ‘길 위의 인문학’이 2024년 4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운영되었다. 매년 참신한 구성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플레이팅 도마, 수분크림 만들기 등 실용적인 체험과 화장산 숲 탐방, 자연 체험 등 가족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연인원 700여 명이 참여하며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과 자연, 향토에 대한 애정과 성찰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길 위의 인문학 참여 모습

3) 작가 오영수 선생 45주기 추모행사

2024년 오영수 선생 추모행사는 5월 11일 오후 3시 야외공연장에서 유족과 문인, 제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제의와 추모음악회 등으로 진행했다.

추모행사는 진혼무, 해적이 소개, 헌다와 헌화, 추모시 낭송, 추모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추모제의에서는 오영수 시 낭송과 유족들의 인사로 꾸며졌고, 추모음악회에는 김애령 시 노래 가수와 타악퍼포먼스 새암의 감각적인 타악기 공연으로 추모행사가 축제 분위기로 마무리됐다.



45주기 추모행사 모습

4) 오영수문학관 문학기행 탐방

오영수문학관은 매년 문학기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5월 28일에는 충북 영동군의 정지용문학관과 영동문학관을 방문하여 문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벤치마킹을 진행했다. 작은 군 단위에서 문학관이 제대로 조성·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지역 문인들의 문학세계를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호응을 얻었다. 참여자들로부터 유익했다는 반응과 함께 향후 참여 의사도 높아, 주목받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 명사초청 인문학 특강

2024년 8월 24일 고려대학교 최동호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시(詩)의 시대성과 생(生)의 영원성’ 주제의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했다. 지역민들로부터 서정시의 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기회가 되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특강 기념촬영 모습

6) 누나별 북 콘서트

오영수문학관은 2024년 10월 5일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야외공연장에서 ‘2024 누나별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 문학과 예술, 체험이 어우러진 행사에는 800여 명이 참여해 문학관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체험프로그램에는 나무도마, 에코백 꾸미기 등 5개 부스에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어진 본 공연에서는 오영수 작품을 바탕으로 한 시노래와 지역 예술단체, 대중가수 공연이 펼쳐졌다.



2024 누나별 북 콘서트 공연 모습

특히, 창작 시노래 4곡이 앨범으로 제작되어 선보였고, 박강수·남궁옥분의 무대는 큰 호응을 얻었다. 누나별 북 콘서트는 문학관이 지역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행사로 평가됐다.

7) 오영수문학상 수상자 초청강연

2024년 한 해 동안 오영수문학관에서 ‘오영수문학상 수상자 초청강연’이 분기별로 1회씩 총 4회 개최됐다. 강연은 지역 문학의 저변확대와 문학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기획됐으며, 4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오영수문학상 수상자 초청강연 모습

김인숙 작가는 단편 「유카」를 중심으로 창작의 배경을 풀어냈고, 이충호 작가는 문학을 통해 사회문제를 성찰하는 과정을 공유했다. 방현석 작가는 문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으며, 김애란 작가는 세대 간 공감과 정체성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초청 강연은 지역민과 문인이 교류하고 문학적 영감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21. 온양문화복지센터 운영

집필 • 울주문화재단 온양문화복지센터장 김현철
집필 • 울주문화재단 온양문화복지센터 대리 이지유
집필 • 울주문화재단 온양문화복지센터 주임 김서영

가. 온양문화복지센터 기획공연

1) 새울원자력본부와 함께 하는 토요시네마

〈새울원자력본부와 함께 하는 토요시네마〉는 새울원자력본부와의 MOU 체결을 통해 진행된 정기 영화 상영 프로그램이다. 상설 영화관이 없는 울주군 남부권 지역의 문화 인프라 현실을 반영,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기획되었다.



토요시네마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총 36회에 걸쳐 최신 영화가 무료 상영되었으며 누적 관람객 수는 총 6,006명을 기록하였다. 특히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을 고려하여 재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예매와 현장 예매를 병행하여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전 세대의 고른 참여를 유도하였다.

토요시네마는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울주 남부권 지역 군민의 문화 갈증 해소는 물론 일상 속 여가문화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군민 일상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2) 개관 15주년 기념 공연 「추억&낭만 콘서트」

온양문화복지센터 개관 15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추억&낭만 콘서트」는 센터가 울주문화재단으로 이관된 이후 첫 기획공연이다. 공연장으로 탈바꿈한 센터의 새로운 시작 및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재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기획되었다.

1일 2회로 운영된 본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었으며, 524석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7080세대를 대표하는 가수 최성수, 박강성, 원미연이 출연하여 중·장년층을 위한 대중가요 중심의 레퍼토리로 구성되었다. 또한 객석점유율 100%를 기록하며 지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센터의 화려한 새출발을 알렸다.



추억&낭만 콘서트

3) 문화가 있는 날 「해설이 있는 음악회」

‘해설이 있는 음악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춰 4월부터 11월까지 6회에 걸쳐 정기 운영된 프로그램이다.

클래식, 영화음악, 재즈, 팝송,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음악 해설가의 해설을 곁들여 관람객의 이해도를 높이고, 장르 음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췄다.



해설이 있는 음악회

가족 단위 관람객과 중장년층의 고른 참여가 돋보였다. 또한 장르별 관람층 분석을 시도, 이후 공연 기획의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고품격 클래식 공연으로 군민들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문화 경험을 통해 음악적 전문 확장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4) 효(孝)콘서트 「소리정감」

5월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을 맞아 장년층 군민을 위해 기획한 효(孝)콘서트 「소리정감」은 전통 국악과 팝페라가 어우러진 퓨전 음악 콘서트이다.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과 웃음을 선사하며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효(孝)콘서트

총 262명의 군민이 관람하였으며, 무료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전예매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고령층 관람객을 배려하여 직원들이 온라인 예매를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예매의 문턱을 낮추고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효과를 얻었다.

무대에서는 국악인 남상일이 특유의 유쾌한 해설과 익살스러운 입담으로 공연의 재미를 더했다. 또한 국악인 최예림과 팝페라 가수 김재빈이 함께 출연하여 다채롭고 품격 있는 무대를 완성하였다. 전통과 현대, 동서양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 콘텐츠를 통해 국악의 대중화를 모색하고, 장년층 관람객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5) 〈야외광장 작은 음악회〉

〈야외광장 작은 음악회〉는 군민 생활권 내에서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거리예술 중심의 정기 공연 프로그램이다.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 매달 1회씩 총 4회에 걸쳐 운영되었다. 공연은 온양읍행정복지센터 앞 광장에서 열렸으며, 마술, 버블쇼, 댄스, 전통연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계층과 세대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선보였다.



야외광장 작은 음악회

공연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하였으며, 돛자리 및 개인 캠핑의자를 활용한 관람 방식을 도입하여 야외 공연의 특색을 살렸다.

총 912명이 관람하였으며, 주요 관람 계층은 어린이 동반 가족 및 중년층이었다. 퍼포먼스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은 공연 몰입도를 높이는 데에 효과적이었으며, 참여형 프로그램의 관객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 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거리예술 장르의 정기 운영을 통해 읍주군민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는 데 일조하였다.

2025년부터는 온양문화복지센터 광장 개선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연 장소를 센터 광장으로 이전하고, 명칭 또한 「야외마당 콘서트」로 변경하여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6) 가족뮤지컬 「사슴 코딱코의 재판」

가족뮤지컬 「사슴 코딱코의 재판」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포함,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공연은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 속 사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여, 사슴의 개인정보 누출 사건을 법정극 형식으로 재구성한 창작극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관객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판결에 직접 관여하는 이머시브(몰입형)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사슴 코딱코의 재판

총 2회에 걸쳐 진행된 공연은 전석 무료 관람으로 운영되었으며, 객석점유율 100%를 기록했다. 특히, 티켓 오픈 당일 90% 이상의 예매율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아, 가족 단위 공연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공연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울주군장애인복지관, 온산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내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단체관람을 진행하였다. 또한 온양문화복지센터 기획 공연 중 최초로 배리어프리 요소를 도입하였다. 공연에는 수어 통역사가 함께 출연하고, 한국어 자막을 제공하여 청각장애인의 공연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ESG 경영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7) 명작공연시리즈 「멘델스존 피아노 트리오의 아름다움」

명작공연시리즈 「멘델스존 피아노 트리오의 아름다움」은 울주군 남부권 군민의 클래식 공연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고품격 실내악 공연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적 갈증 해소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다. 국내외 주요 콩쿠르에서 수상 경력을 보유한 커티스 트리오(바이올린, 첼로, 피아노)가 출연하고, 클래식 해설가 장일범이 진행을 맡아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해설을 제공하였다.



명작공연시리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운영되었으며, 관람객은 총 282명으로 100%의 객석 점유율을 기록하였

다. 티켓 오픈 초기부터 높은 예매율을 보이며 울주 지역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하였다.

공연은 LED 화면을 활용한 악장 표기와 해설자의 곡 해설을 병행함으로써 클래식 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관객의 이해를 도움과 동시에 음악적 감상의 깊이를 더했다. 이를 통해 공연이 단순한 감상 중심의 무대를 넘어 클래식 음악에 대한 교육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8) 수험생 힐링 매직쇼「매직 프레젠티」

수험생 힐링 매직쇼「매직 프레젠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자 기획된 공연이다. 마술, 마임, 저글링, 레이저 및 그림자 퍼포먼스를 아우르는 복합 퍼포먼스 공연으로, ‘지금(Present)’이라는 순간이 가장 소중한 ‘선물(Present)’임을 전하며 수험생들에게 정서적 위안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수험생 힐링 매직쇼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초청 공연으로 운영되었으며, 오감을 자극하는 시각 중심의 공연 구성과 관객 참여형 연출로 큰 호응을 얻었다. 온양문화복지센터에서는 총 264명이 관람하여 객석점유율 93.6%를 기록, 목표였던 60%를 초과 달성하였다.

식전공연으로 초청 학교의 댄스 동아리 공연을 진행하였고, 본공연에서는 관객과 소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울주군 내 청소년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다. 동시에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공헌의 의미도 함께 담아냈다.

9) 7080 콘서트 「감성 포크 콘서트 Song for you」

7080 콘서트 「감성 포크 콘서트 Song for you」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중·장년층 관객에게 따

뜻한 위로와 새해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된 송년 음악회다. 포크 음악 전성기였던 7080세대의 감성을 되살리는 무대로,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대중음악 공연을 제공했다.

가수 유리상자, 김희진, 팬플룻 연주자 조향숙이 출연하여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총 191명의 관객이 공연장을 찾아 객석점유율 67.7%를 기록, 목표치(60%)를 초과 달성하였다.



7080 콘서트

공연은 특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기획된 만큼 추억과 공감을 자극하는 선곡과 무대 연출을 통해 큰 호응을 얻었고, 문화 행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한 문화 향유 욕구 충족이라는 기본 목표 아래, 세대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과 효과를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 온양문화복지센터 문화강좌 및 헬스 운영

1)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온양문화복지센터에서는 총 3학기에 걸쳐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 다방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울주군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건강증진 강좌를 비롯한 5개 분야에서 69개 반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강한 여가 활동 및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센터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군민들이 고루 강좌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문화강좌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총 44,851명에 달했다.



문화강좌(토요난타)

이를 통해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는 공연장으로써의 역할 외에 군민들에게 상시 다채로운 문

화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행하였다. 또한 수강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수강생들의 의견을 수렴, 이를 반영하여 2025년 역시 지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 헬스 운영

온양문화복지센터에서는 센터 1층에 위치한 헬스장을 운영하며 안전하고 청결한 운동 환경을 제공, 지역 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했다.

특히 기존의 지문인식 출입에서 더욱 간편한 안면인식 출입으로 전환,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4년 헬스장 이용 인원은 총 1,686명에 달했으며, 사물함 이용 인원은 총 2,449명이었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 헬스 등록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 단위로 변경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상승시켰다.



헬스장

2025년 역시 저렴한 사용료와 깨끗한 운동 환경을 제공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운영 조례 변경으로 인해 65세 이상 이용객의 사용료를 50% 감면 적용하여, 헬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